日, 7년 만에 '젠코지 개장' 봉행한다

비불(祕佛) 공개 법요…
연간 500만 명 이상 찾아

백제성왕이 선물한 불상
친견 극락왕생 신앙형성
2015년엔 707만 명 운집
코로나19에도 준비 박차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젠코지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일본 불교계 최대 축제로 불리는 '젠코지 개장(善光寺 開帳)'이 2022년 봉행된다. 7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는 평소 공개되지 않는 본존불을 공개하여 참배하는 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법요다. 종파를 초월해 많은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행사다.

11월 26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젠코지 개장의 준비상황을 보도했다.

젠코지(善光寺)는 나가노시에 소재한 천년고찰로 중세부터 살아 생전 이 사찰을 참배하고 본존인 아미타삼존상을 친견하면 극락에 왕생한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젠코지 아미타삼존상은 일본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불상으로 여겨진다. 젠코지 연기설화에 따르면 아미타삼존상은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선물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신앙적 배경에서 일본 각지에서는 젠코지 불상을 모각해 봉안하거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젠코지 아미타삼존상은 젠코지 주지 스님조차 쉽게 친견할 수 없는 비불(祕佛)이다. 사찰에는 14세기 조성한 분신(分身) 본존상이 봉안됐으나, 이 불상 역시 비불로 모셔졌다. 비불을 공개하는 법요가 또 다른 신앙으로 자리하면서 '젠코지 개장'이 시작됐다.

300년 전부터 7년에 1번, 소띠와 양띠해에 봉행되고 있는 젠코지 개장은 매년 평균 500만 명 이상의 참배자가 몰린다.

2015년 개장에는 707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 인파가 몰렸다. 당초 올해 4월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며 내년으로 개최가 미뤄졌다.

그러나 젠코지와 행사를 운영하는 젠코지 개장 봉찬회 측은 "지금까지 전쟁이나 여러 자연재해 속에서도 개장을 멈춘 적이 없었다"며 2022년 4월 개장을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젠코지 측은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장법요가 1개월간 진행되어 온 방식을 변경해 2개월간 연장해 친견 인원을 분산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봉찬회 측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요를 봉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11월 22일 젠코지에서 열린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설명회에서는 사찰이나 인근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참배객들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설명회에서는 젠코지 인근 숙박관계자 80여 명을 비롯해 감염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야마기시 타쿠야 日국립감염증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듯하지만, 영미권의 재유행이 우려된다"며 "2년간 수백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젠코지 측에서는 대중공양을 없애고 사찰 내 숙박공간을 별도로 나누며, 참배 시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젠코지 개장에서 참배객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상징으로 만지는 오색 끈에는 항바이러스 코팅을 하는 것도 제안됐다.

젠코지 사무총장 와카오미 슌소쿠 스님은 "참배하러 오는 이도, 이들을 여기에서 맞이하는 이들도 모두 안전하게 법요를 봉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간 바미안 석굴 관광 재개

美CNBC 11월 24일 특별 보도



지난 11월 24일 미국 경제뉴스 전문 방송 'CNBC'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석불 관광 재개 소식을 전했다.

2001년 초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미얀 석굴사원을 비롯한 다수의 불교 유적과 유물을 파괴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20여 년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하면서 보다 부드러운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바미얀 석굴사원의 관광을 재개했다.

하얀색 탈레반 깃발 아래 군인들이 입장권(한화 약 6000원)을 판매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고대 불상이 서있던 절벽 면의 거대한 구멍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탈레반 지지자 시디크 울라는 "바미얀 석굴사원을 보기 위해 칸다하르에서 친구들과 함께 563Km를 달려왔다. 내가 7살 때 바미얀 석굴사원이 파괴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났었는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꿈이었다. 불상이 파괴되어 기쁘다. 사실 폐허를 보러 왔다.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국을 순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달 전 다시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일부 지역에서 잔혹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온건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경파 이슬람 단체가 수년간의 반란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경제적, 안보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라는 국제기구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다.

'바미얀의 부처'의 저자이자 옥스퍼드대 고전학 교수인 르웰린 모건은 "바미얀은 항상 외부 세계가 주목해온 아프가니스탄의 일부였다. 탈레반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관광 재개는 자신들을 건설적인 정부로 묘사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한때 불상이 서 있던 구멍에는 비계가 남아있지만, 보존 작업은 이제 끝났다. 탈레반이 관광객을 환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NBC 뉴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4년간 수감생활을 한 압둘라 사르하디 주지사는 "탈레반은 변화했으며 역사적 기념물을 보존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와 안전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고독사 많은 日, 부동산 천도재 화제

사망사고 발생 부동산 대상 진행

고인 명복 빌며 장소 정화
유가족 등 심적 부담 완화
상업적이용 비난도 높아져



부동산 천도재 전문업체가 홍보하는 홈페이지. 24시간 대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출처=PR타임즈토

다양한 사망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해당 장소를 정화하는 '부동산 천도재'가 일본에서 화제다. 11월 25월 일본의 인터넷 매체 'PR타임즈'는 부동산 천도재를 전문으로 스님을 파견하는 업체에 대해 보도했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례회사 '라이프 엔딩 테크놀로지스'는 부동산 천도재를 전문으로, 전국에 스님들을 파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개별요양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천도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증가하며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동산에 '사고물건'이라는 용어가 붙고 있다.

회사 측은 "고독사나 자살 등이 증가하며 사회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경제적 가치 또한 하락한다"며 "유가족뿐만 아니라 건물주와 다음 입주자 모두 이런 사망사고 발생 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천도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부동산 천도재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는 그 장소에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고, 그 장소를 정화하는 의례"라며 "고인과 관계된 이들의 심적부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부동산 천도재의 목표"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천도재는 회사가 예상한 수요의 2배가 넘게 봉행됐다. 상담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천도재에 대응하는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스님, 사찰들과 제휴를 맺어 상담을 진행하는데, 1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등록한 상태다. 가톨릭이나 신토(神道) 신자들에게도 대응해 해당 종교의 성직자들과도 제휴를 맺었다.

회사 측은 "이 천도재 특징은 일본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종단의 스님을 모실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담을 요청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사찰과 스님에서 천도재에 대응하게 된다"며 "해당 사찰의 신도가 되거나 별도 등록이 필요 없고, 스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업체에서의 천도재는 부동산 천도재부터 49재, 기제사 등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SNS상에서 한 스님은 "망자의 죽음을 이용한 노골적인 상업행위"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도 "사고물건에 대한 건물주의 심리를 이용해 천도재 상품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캄보디아 환경보전 순례 진행

스님들 앞장, 인식 개선 이어져



캄보디아 스님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순례길에 올라 화제다. 캄보디아 일간지 '프놈펜포스트'는 11월 25일 캄보디아 스님들의 환경보전 순례길 소식을 전했다.

프레아 시아누트 라자 불교대학(SBU) 부총장 겸 프놈펜 시립 승가 협회 부대표인 요른 셍 예트 스님은 환경보전과 인식개선을 위해 순례길에 올랐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아오랄 산을 중심으로 뻗은 순례길을 걸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을 위해 대중들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스님들의 역할이 캄보디아의 숲 보존과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지난 1월 시작한 환경보전 순례길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불로 순례의 시작을 알리며 순례길 중간에 환경보전의 상징으로 하루의 두 그루의 큰 나무를 자연에 봉헌했다. 4차례에 걸친 순례 동안 약 20그루의 나무를 숲에 심었다. 하루가 끝나면 스님들이 모여 그 날 맞닥뜨린 도전에 대해 단체 토론을 벌였다. 모두 숲에 온 목적, 즉 환경을 사랑하고 보전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상기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예트 스님은 "숲은 캄보디아인의 공동 재산이다. 우리의 숲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불자 여러분, 그리고 캄보디아 국민 여러분, 숲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숲을 잘 보살펴야합니다. 우리는 땅, 물, 불, 공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환경을 돌보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안양 수리산 용화사
합동 수계법회 봉행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는 사바세계오신 용화미륵부처님께서
직접 수계를 해주십니다.
용화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나쁜 업장이 소멸되어 세세생생 윤회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합동 수계 법회 전화 예약접수
■ 일시 : 12월 한달간 매일 오전 11시
(수계접수자가 많아서 12월 한달내내 매일 수계해줍니다.)
■ 장소 : 수리산 용화사 (안양시 만안구 공평빌딩 6층)
■ 문의 : 031)444-9985, 9986, 9987

NAVER, YouTube 에 용화 미륵부처님 TV 검색

